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7년 4월 5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5(수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4. 4. (화)	담당부서	전력산업과
담당과장	김성열 과장(044-203-5240)	담 당 자	안홍상 팀장(044-203-5241) 임기홍 사무관(044-203-5254)

◇ 전력·가스공기업 손잡고 복합재난에 대비한다 ◇

○ 산업부, 한전·가스공사·전력거래소와 합동 재난대응 훈련 실시
○ 봄철 산불로 인한 송전선로고장, 발전소 공급용 가스배관 손상, 사이버테러 등 복합 위기상황에 대비

□ 산업부는 **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 주재**로 4. 5.(수) 전력거래소(나주시 소재)에서 한전·발전사·가스공사 등 **에너지 분야 유관기관 합동으로 재난대응훈련**을 한다.

○ 이날 훈련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, 만일의 위기상황에 대비해 에너지 기관별 위기대응 활동을 점검하고, 기관간 정보공유와 협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대(對) 국민 에너지공급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마련했다.

<훈련 개요 >

○ 일시·장소 : '17.4.5일(수) 10:30~11:30, 전력거래소 전력수급상황실
○ 주요참석자 :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, 전력거래소 이사장, 한전·발전사·가스공사·에너지공단·전기안전공사 임원 등
○ 주요내용 : 산불·공사현장재해·사이버테러 등 복합재난 발생에 대비 복구훈련

□ **(수급안정)** 훈련에 앞서 김학도 실장은 최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**안정적인 수급상황이 지속**되고 있기는 하나, 긴장을 늦추지 말고 **환절기 위험요인에 대해 철저한 수급관리**를 당부했다.

○ 특히, 3~4월은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산불상황 관찰과 점검을 강화하고, 설비피해 발생시 빠른 시간내에 복구가 가능하도록 평상시 실전과 같은 훈련과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함을 강조했다.

* 최근 10년('07~'16) 산불현황 분석결과 3~4월 중 연간 산불의 49.3% 발생(산림청)

□ **(훈련 배경)** 그간 에너지분야 위기대응 훈련은 분야별로 시행하여 왔으나, 이번 훈련은 최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해, **가스·전력 등 에너지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복합위기에 대비하기 위해** 시행했다.

□ **(기관별 역할)** 이날 훈련은 **산불·공사현장재해·사이버테러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전력·가스시설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위기상황**을 가정해 **각 기관별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 한다.**

○ (한전) 산불로 인한 송변전설비 피해 복구 및 정전지역 긴급 전력공급
○ (발전사) 송전선로 고장·사이버테러로 정지된 발전기 긴급 재가동 및 피해복구
○ (가스공사) 공사현장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가스공급망 긴급복구
○ (전력거래소) 전력·가스설비 피해상황과 전력수급·계통운영을 종합관리

□ **(훈련방법)** 이날 훈련은 한전의 변전소, 가스공사의 가스배관 등 **설비 피해 현장을 화상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생중계하는 등 실전과 같이 진행**함으로서 훈련효과를 극대화했다.

□ **(유관기관 협업)** 훈련을 주재한 김학도 실장은 전력·가스 등 에너지 분야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**평상시 정보공유와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복합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**함을 강조했다.

* 산업부는 지난 1월 에너지공공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에너지기관간 협업체계를 강화

○ 에너지 시설별로 각 분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, 유관기관간 **위기대응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·훈련**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.

□ **(대(對)국민서비스)** 아울러, 김학도 실장은 이날 훈련에 참여한 에너지 유관기관 임직원에게 **에너지는 국민생활·산업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 공공서비스**라는 점을 명심하여 **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.**

□ **(향후 계획)** 산업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스분야 등 **연료도입 부분과 전력분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**하기로 했다.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임기홍 사무관(☎ 044-203-525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4-05 09:18:46